



12면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 '사적' 지정

전주매일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음 4월 3일) 제301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관영 후보가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당 대통합 이뤄내겠다”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지혜준 도민·당원에 감사
낙선후보·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 합쳐 지선 압승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관영 후보가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을 통해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전북도민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그는 이어, “경선에 동행한 안호영, 김윤덕 후보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처음부터 함께 했던 송하진 지사와 유성엽 후보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이제부터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합과 혁신은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핵심 가치”라며 “경선 선거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아픈 말들이 오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 잊고 하나로 뭉칠 때가 경선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이뤄졌던 고소·고발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 대선 때도 경쟁했던 후보들이 원팀이 돼서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냈었다”며 “민주당 내외의 흠어져 있는 동자들이 모여서 대통합도 완성시키겠다. 우리도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관영의 정치는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대통합 정신으로 하나가 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최종 결선을 함께한 안호영 후보를 비롯해 김윤덕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

하는 ‘원팀’ 선대위를 꾸려 대통합과 혁신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6.1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도지사 후보로서 모든 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을 위해 앞장서 뛰겠다”면서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 후보들과 정책공조와 정책연대를 통해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관영 후보는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제 야당으로 전환되는 만큼 더 절박하고 치열하게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면서 “민생회복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전북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예타조사 통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100ha 규모로 조성... 국내 유일

농기계 산업의 중심지 전북도가 국내 농기계 산업이 글로벌 농기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

국내 농기계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등 종합평가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했다.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원에 조성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인 첨단농업시험단지 100ha 규모로 조성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이하 실증단지)는 지능형 농기계를 상용화하기 전 일정기간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시험·평가 공간이다.

지능형 농기계는 일반 농기계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IT 기술을 융·복합한 자동화·무인화·자율화 기술이 탑재된

첨단기계이다.

전기, 수소 등 대체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포함한 친환경 농기계까지 다양한 기술을 집적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농기계 개발과 고품질 농기계 생산 및 수출 활성화’ 목표로 실증단지 구축계획을 포함 추진했다.

또한, 전북에서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세부과제이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사업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정부 지원대책사업으로 추진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실증단지 구축은 농기계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자율주행·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국내 농기계 산업의 첨단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실증단지는 실제 농업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 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실증인프라 제공으로 연중 테스트 수행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실증단지는 농기계의 현장 적용 테스트공간의 실증부지(95ha)와 종합 운영·관리를 위한 실증지원센터(5ha)로 구성된다.

실증부지는 농기계의 활용도에 따라 농업용, 밭 농업용, 주황용 실증부지로 세분화하고, 실증지원센터는 이 용기업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동, 검인증 분석실, 격납고 시설로 조성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디며, 전북도가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의 지역경제를 넘어, IT 기술의 날개를 달고 첨단농기계 산업으로 발전해 국내 농기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사업기간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을 완료해 국내 첨단농기계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제시장 후보 경선 해명하라”

당 개혁 요구 김제시민들, 박준배 시장 1급 포상 미반영 문제삼아
전과기록·병역 등 부실 검증도 문제제기... 이원택 의원에 해명 촉구

“공정으로 포장된 민주당 경선은 당원들의 눈속임인가? 이원택 위원장은 해명하라”

민주당 개혁을 요구하는 김제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발표된 김제시장 경선 결과에 대해 ‘경선이 불공정했다’며 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김제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두고 1급 포상 공로자인 박준배 김제시장이 15%의 공정 가산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김제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민주당 개혁을 요구하는 김제시민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회견문을 통해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지역 사무실을 찾아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당원들의 눈을 속인 민주당 경선물에 분노한다. 불공정한 경선 과정의 모든 책임은 이원택 위원장에 있다”며, 이원택 의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시·군 후보들에게는 가점 또는 가점을 반영했는데도 김제시장 후보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원택 의원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요구하는 김제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발표된 김제시장 경선 결과에 대해 ‘경선이 불공정했다’며 2일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김제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 후보들의 재산·학력·병역·전과 기록 등도 심도 있게 검증하지 않은 것 같으며, 검증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시민들은 “시민 안심번호로도 투표하고 권리 당원으로서도

투표하는 등 2회에 걸쳐 투표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투표 참여 이후에도 최고 5번 이상의 투표 독려 전화가 걸려온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경선은 당원과 시민들의 참정권이 왜곡된 심각한 불공정 경선이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별취재반

5월 11일(수)에는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기념공원 개원식이 열립니다.

주최 | 정읍시
주관 |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그때의 하늘 지금의 우리

제55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22. 5. 7(토) ~ 8(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정읍시 일원

초대 가수

5월 7일	민경훈	에일리	우리나라	홍장민
5월 8일	미스물리	정상희	정주	조연비